

地形에 따른 鄉校建築의 配置 位階研究

A Study on the Spatial Hierarchy Responding to the site in Hyangkyo Architecture

조 원 섭* 이 달 훈**
Jo, Won-Seob Lee, Dal-Hoon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spatial hierarchy of Hyangkyo architecture. Hyangkyo was built on the basis of Confucianism.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patial hierarchical construction responding to the site.

The arrangement style of hierarchical construction changed according to the site. This is the reason that the hierarchy of Confucianism has the relationship of the upper class and the lower class, high and low of position, high of right and low of left, and the theory of division based on topography.

2) The hierarchical construction responding to the arrangement style.

Buildings were hierarchically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ite of the architecture. This is the result of hierarchy.

In conclusion, the spatial hierarchy means that Hyangkyo architecture had been built according to an order on the basis of Confucianism.

키워드 : 위계, 향교, 배치

Keywords : hierarchy, traditional educational facility, sitepla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鄉校는 儒學思想에 바탕을 두고 설치 운영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조선시대에 유학적 사상체계를 통치이념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국가 질서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을 이끌어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와 같이 유학적 사상체계를 통한 민중교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鄉校와 書院, 家廟 등을 비롯한 의식행위를 위한 건축물들이 각지방에 많이 건립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 향교건축은 대표적인 유교건축으로써 유교문화이념의 수용과 보급 그리고 관리의 양성과 지역사회의 교화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鄉校는 지금까지도 우리민족의 정신사

* 대전대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세경대 조교수

** 대전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와 지역의 문화창달, 지역주민의 교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유교문화 유산으로써 성인, 성현의 봉사와 함께 유교교육의 실천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향교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가 부분적 또는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객관성을 갖도록 하고자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231개 향교건축물을 중심으로 지형에 의한 질서체계를 파악하고 검증하여 향교건축에 내재되어 있는 位階性을 밝혀 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전국의 233개 鄉校 중 근래에 건립된 동해(1995), 강양(1965)향교를 제외한 231개(표.1) 鄉校를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지역별 연구대상 향교현황

지역	향교명	향교수	비고
경기	양친, 인천, 부평, 수원, 남양외 25개소(성균관제외)	30	서울
강원	강릉, 원주, 춘천, 삼척, 홍천외 10개소(동해제외)	15	
충남	천안, 회덕, 진잠, 직산, 목천외 33개소	38	대전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청풍, 청산외 13개소	18	
경남	동래, 진주, 통영, 언양, 기장외 24개소(강양제외)	29	부산
경북	대구, 칠곡, 현풍, 영일, 경주외 38개소	43	대구
전남	광주, 여수, 돌산, 순천, 담양외 24개소	29	광주
전북	전주, 옥구, 임피, 정읍, 고부외 21개소	26	
제주	제주, 정의, 대정	3	
합계	-	231	

연구의 방법은 향교건축에 대한 位階性을 밝히고자 유학과 鄉校에 관련된 각종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물조영에 적용된 질서체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답사 하여 실측 및 조사를 병행하여 종합분석을 하고, 그 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논술된 논문 및 실측자료와 각종 관련자료를 함께 수집 분석하였다.

2. 향교의 배경과 건물구성

2.1 향교의 역사적 배경

鄉校는 조선시대에 공자와 그 제자들을 봉사하고 또 지방양반 자제들의 교육을 주로 담당하였던 곳으로 고려 인종 5년(1127)에 처음으로 鄉校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

그러나 선현의 향사기능과 함께 유학이념의 보급을 위한 본격적인 설립은 송유배불정책과 지방교육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많은 鄉校가 설립되었다.

특히, 조선 태조 7년에는 중앙에는 성균관을 지방에는 하급관학으로 鄉校를 두었고, 태종 11년에는 중앙의 鄉校라 할 수 있는 오부학당을 두었으나 세조 27년에 북부학당을 폐지하여 동, 서, 남, 중학의 사부학당 만이 남아 중앙의 양반자제를 교육하였다.²⁾

이와 같이 향교는 고려에서 시작하여 조선에 계승된 지방 교육기관으로 현재에 전국 233곳에서 유지운영 되고 있다.

2.2 향교의 건물구성

향교는 일반적으로 文廟空間과 講學空間 그리고 支援空間으로 크게 구성되고 있으며, 각 공간이나 건물의 구성은 일반 관아건축이나 서원건축보다 그 지역의 경계가 확실하고 位階的이다. 또한 건물의 독립성이 대체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文廟空間에 유현을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大成殿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청으로 東廡와 西廡를 각각 두고 그 전면에 內三門을 놓고 있다.

그리고 공자의 사상을 받들어 유생을 모아 강습하는 講學空間에는 明倫堂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청으로 東齋와 西齋를 각각 두고 그 전면에는 外三門이나 樓閣을 배치하고 있다.

그 외에 제향과 교육의 기능을 보조하는 제기고, 전사청, 존경각 등의 지원건물들이 文廟와 講學空間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전체적인 건물의 位階를 적절히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다.

1) 『高麗史』, 仁宗五年三月 “詔諸州立學 以廣教導” 仁宗二十年二月 “在外生度 各於界首官鄉校都會” 라는 기록에 의함

2) 이달훈외 1인, 「향교건축의 양식에 관한 연구3」,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제3집, 1983. p.170

3. 위계이론 분석

3.1 유교에 나타난 위계

유교는 인륜의 질서를 중요시하고 개인을 그 속에 포함시켜 사람이 도를 지키는데 있다고 하여 윤리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선조에는 충효를 중심으로 인륜을 내세워 군신, 가족사이의 위계적 질서규범을 중요시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부자사이의 친애, 군신사이의 의리, 부부사이의 분별, 장유사이의 차서, 봉우사이의 신의 등 오륜 그리고 주자가례와 같은 의식적 윤리규범과 소학과 같은 행동강령을 기본원리로 하는 인간관계의 위계질서를 강조하였다.³⁾

이러한 유교의 원리는 예를 기반으로 민중교화에 이바지하였으나 중적인 상하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념 때문에 서열과 권위에 대한 맹종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계층 및 서열에 따라 예를 기본개념으로 형성된 유교의 질서규범은 향교건축의 조영목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3.2 향교에 나타난 위계

향교건축은 우리의 전통사상인 유교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위계질서에 의하여 조영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며, 유교가 지향하는 예를 기본으로 상하의 개념을 표현된 건축물이다.

공간의 구성에서는 진입과정으로부터 진입공간→과정적공간→본공간(강학공간)→승화공간(제향공간)의 순서로 位階性을 표현하였다.⁴⁾ 그리고 支援空間을 적당한 위치에 적절히 배치하였다.

지형에 따른 位階의 구성을 보면 평지에 위치한 향교는 공간의 배치를 일부 바꾸어(제향공간→강학공간)배치하여 전상후하의 법칙으로 位階를 두었으며, 경사지에 위치한 향교는 높낮이의 단차를 두어 고상저하의 적용으로 位階를 표현하고있다.

향교건축에 나타난 位階性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① 상하의 위계 : 수직적인 위계로 유교 예제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상하서열의 형식

- ② 전상후하의 위계 : 동등한 위치에서 앞이 뒤보다 위계가 상위임을 나타내는 형식
- ③ 고상저하의 위계 : 높낮이의 단 차이를 이용하여 높은 곳이 낮은 곳 보다 위계가 상위임을 나타내는 형식
- ④ 우상좌하의 위계 : 우측이 좌측보다 위계가 상위임을 나타내는 상하의 질서와 음택풍수의 우남좌여에 따른 위계 형식
- ⑤ 좌상우하의 위계 : 좌측이 높고 우측이 낮다라는 양택풍수에 의한 위계 형식
- ⑥ 선상후하의 위계 : 시간차에 따른 위계로서 상위의 것을 먼저 진행하고 하위의 것을 나중에 진행하는 형식
- ⑦ 대상소하의 위계 : 큰 것이 상위이고 작은 것은 하위임을 나타내는 형식
- ⑧ 공간구획의 위계 : 공간의 용도와 기능의 위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것
- ⑨ 공간구성의 위계 : 향교건축의 공간구성을 위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
- ⑩ 건축조영의 위계 : 건축물간의 위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을 위계적으로 조영하는 것
- ⑪ 시각상의 위계 : 시각상 상위의 것이 하위의 것 보다 위에 있고, 시야가 확보되는 것
- ⑫ 축에 의한 위계 : 강한 중심성과 권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축을 사용
- ⑬ 건물명칭에 의한 위계⁵⁾ : 향교건축물의 명칭은 공간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하는 한자로 표현하여 위계를 형성하는 것

4. 건물배치의 위계성 고찰

4.1 지형에 따른 배치의 위계구성

배치에서의 위계질서는 단순하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엄격한 우리의 유교이념과 풍수사상의 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형의 형상에 따라서 건물의 배치 유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교 사상에 의한 상하관계, 고상저하, 우상좌하라는 법칙의 적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음택풍수의 우남좌여, 양택풍수의 좌상우하라는 상하의 법칙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5) 주3), 상게서, p.56

3) 도용호,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교육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박사논문, 1995. p.92

4) 한국전통건축연구회, 『한국전통건축』, 향교·서원건축, 황토, 1977. p.276

그 외에 향교의 설립주체와 설립특성, 사용자의 건축적 사고, 향교의 변천과정 등이 배치 位階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형에 따른 배치위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배치의 위계질서는 유교에 의한 상하의 관계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공자를 모시고 있는 文廟(大成殿)가 유생들이 교육을 받는 講學(明倫堂)보다 상위에 있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평지의 지형에 배치되고 있는 성균관과 나주향교 등에서 보여지고 있는 前廟後學의 배치에서 전상후하라는 상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3) 경사지의 지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前廟後學의 배치에서 유교사상의 시각적인 상하개념인 높고 낮음에 의한 지형의 고저에 따른 고상저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그 밖에 변칙적인 유형으로 左學右廟와 左廟右學이 나타나고 있다.

5) 左學右廟의 경우 우측이 높고 좌측이 낮은 우상좌하라는 상하의 법칙에 따라서 배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음택풍수의 우남좌여의 법칙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6) 左廟右學의 경우는 좌측이 높고 우측이 낮은 좌상우하라는 양택풍수로 해석할 수 있다.

7) 이와 같은 변칙적인 유형의 또 다른 이유는 대지조건의 한계 등으로도 볼 수 있다.

4.2 배치형식에 따른 위계구성

향교건축에서 나타나는 배치의 구성요소인 외부공간은 제향과 강학기능에 의하여 크게 두 공간으로 구획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뉘어진 공간은 입지환경에 따른 고상저하 형식의 위계적 질서와 유학적 체계의 전상후하, 우상좌하의 형식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位階를 구성하며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前廟後學, 前學後廟, 左廟右學, 左學右廟의 배치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향교가 들어서는 지형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배치형식이 결정되고 거기에 건축물이 位階를 두고 놓이게 된다.

실제로 전국에 있는 前廟後學의 경우에는 평지가 7개소 경사지가 1개소로 나타났고, 前學後廟에서는 평지와 완경사가 27개소, 경사지와 급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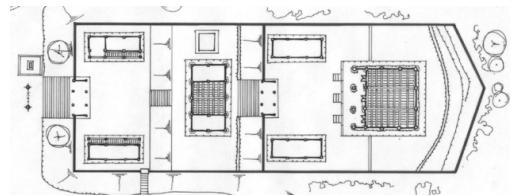
가 162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형적 요소는 배치체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내면에는 유교적 位階性이 사상적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즉, 경사지형에 입지한 향교는 상하의 위계적 질서로 나타난 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이 조영의 규범이 되고 있고, 반대로 평지에 들어선 향교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前廟後學이라는 배치형식이 또 하나의 배치전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

그밖에 여러 가지 경제, 지형적 조건 등에 의하여 位階性을 두고 左廟右學과 左學右廟가 나타나고 있다.

배치형식에 따른 사례(도면.1)와 세부 배치기법은 다음과 같다.



도면 1. 전학후묘 배치 사례(청풍향교)

1) 前廟後學

향교의 배치수법으로 보아 앞쪽에 大成殿이 위치한 문묘구역이 들어서고 그 뒤쪽으로 明倫堂이 위치한 강학구역이 놓이는 형태를 말한다.

건물은 외삼문과 大成殿 그리고 내삼문과 明倫堂이 차례로 일축선상에 놓이고, 동서무와 동서재는 大成殿과 明倫堂 전면에 각각 대칭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런 구성은 전후개념의 位階的 표현으로 동등한 위치인 평지에서는 유교적, 건축적인 位階性의 표현을 앞이 뒤보다 位階가 상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상후하의 위계질서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차에 따른 位階의 적용으로서 상위의(大成殿) 것을 먼저 진행하고 하위의(明倫堂) 것을 나중에 진행하는 전상후하의 위계질서를 이끌어내고 있고, 그 밖에 건물의 크기와 규모 등에 따른 대상소하의 位階性을 두고 표현되는 것을

6) 김지민, 「향교건축의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2. p.160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前廟後學은 앞과 먼저 것이 상위라는 개념의 질서체계가 시각상 표현된 것으로 位階가 높은 제향공간을 전면에 놓고 位階가 낮은 講學空間을 후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유학적인 예의 개념이 배치의 형태에 그대로 조영되어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前廟後學 형식의 공간구성은 유학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예의 질서규범을 바탕으로 전상후하의 개념이 적용되어 전면에 제향공간을 그리고 후면에 講學空間을 각각 놓은 位階的 배치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배치형식의 실례는 나주향교에서 보듯이 전후개념의 位階의 표현인 전상후하의 형식에 따라서 전면의 경의 공간에 大成殿을 설치하고, 그 후면에 스승이 기거하며 강론이 이루어지는 明倫堂을 놓아 유교적 예의 질서규범에 의한 전상후하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2에서 보듯이 이러한 前廟後學의 배치는 전국적으로 서용성균관을 제외하고 8개소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주, 경산(분리형), 나주, 함평, 영광, 전주, 정읍, 의성(분리형)향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 2. 前廟後學의 지형별 배치현황

구분	향교명	향교수	비율 (%)
평지	경주, 경산(분리형), 나주, 함평, 영광, 전주, 정읍(성균관)	7(1)	88
경사지	의성(분리형)	1	12

대체로 前廟後學의 평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유교질서에 의한 전상후하의 개념에 따른 位階性이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평지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청산, 언양, 장수향교 등의 前學後廟의 배치는 유교적 질서에 의한 전상후하의 개념보다는 건물의 규모, 양식, 구성요소의 높낮이 등이 대상소하의 개념이 질서규범에 내재된 位階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 前學後廟

향교의 배치상 明倫堂이 위치한 강학구역이 앞쪽에 위치하고 그 뒤쪽으로 大成殿이 위치한 문

묘구역이 배치되는 형태로써 우리 나라 향교의 대부분이 이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건물은 외삼문과 明倫堂 그리고 내삼문과 大成殿이 차례로 일축선상에 놓이고, 동서재와 동서무는 明倫堂과 大成殿 전면에 각각 대칭으로 위치하게 된다.

공간내에서는 동서재의 위치에 따라서 전학후재형과 전재후학형으로 분류되는데, 그 기준은 明倫堂을 중심으로 양재가 앞면에 놓이게 되면 전재후학이 되고 뒷면에 놓이게 되면 전학후재가 된다.

이 형식 중 전재후학형이 일반적이라 배치수법이라 할 수 있으며, 전학후재형은 특수여건 및 지형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구성은 상하개념의 位階의인 표현으로 경사지에서 지형적인 位階의 표현을 수직적인 유교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상하서열의 상하형식과 높낮이의 단 차이를 이용하여 높은 곳이 낮은 곳 보다 位階가 상위임을 나타내는 고상저하의 형식이 적용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유교의 기본이념과 경의공간을 높은 곳에 위치시키려는 성리학의 경천성이 복합적 기본개념으로 표현된 것이다.

즉, 位階가 낮은 講學空間이 지형상 낮은 전면에 배치되고 位階가 높은 제향공간이 지형상 높은 곳의 후면에 배치함으로써 질서체계에 의한 位階的 표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경사지나 구릉지에서는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전상후하보다 고상저하의 형식에 의한 位階에 따라서 유학적 예의 질서규범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사지에 조영된 대부분의 향교건축은 前學後廟형식을 취하고 있어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고상저하의 배치규범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3에서 보듯이 明倫堂이 大成殿의 앞에 낮은 지형에 놓이는 前學後廟의 배치는 전국 231개소의 향교 중 189개소(82%)의 향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형은 청산, 장수향교 등의 27개소(15%)에서 극히 일부만이 평지와 완경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양천, 청주향교 등의 162개소(85%)에서는 경사지와 급경사지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유교적 질서인 예의 체계에 맞추어 고상저

7) 김남웅,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배치와 외부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사논문, 1979, p.32

하의 형식이 질서규범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位階의 배치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前學後廟의 지형별 배치현황

구분	향교명	향교수	비율 (%)
평지	경광주, 청산, 통영, 언양, 거제, 안의, 낙안, 금구, 장수	9	5
완경사지	수원, 평택, 가평, 영월, 남포, 홍주, 창원, 현풍, 신령, 진보, 순천, 남평, 해남, 지도, 옥구, 함열, 진안, 용담	18	10
경사지	양천, 인천, 부평, 교동, 진위, 파주, 시흥, 교하, 적성, 양지, 양주, 여주, 용인, 연천, 포천, 양근, 죽산, 양성, 김포, 지평, 안성, 통진, 강릉, 원주, 춘천, 삼척, 홍천, 횡성, 양양, 정선, 화천, 양구, 간성, 인제, 천안, 회덕, 진잠, 직산, 목천, 아산, 온양, 신창, 공주, 보령, 오천, 노성, 연산, 진산, 은진, 금산, 서산, 해미, 연기, 진의, 부여, 홍산, 서천, 임천, 석성, 청양, 비인, 한산, 대흥, 덕산, 정산, 결성, 예산, 태안, 당진, 면천, 충주, 제천, 청풍, 옥천, 문의, 보은, 회인, 괴산, 영동, 황간, 정안, 음성, 연풍, 울산, 함안, 칠원, 김해, 영산, 고성, 남해, 단성, 창녕, 삼가, 초계, 영일, 김산, 개령, 홍해, 영주, 순흥, 지례, 안동, 인동, 선산, 상주, 함창, 문경, 영천, 하양, 자인, 군위, 영양, 영덕, 영해, 고령, 봉화, 울진, 평해, 예천, 용궁, 전광주, 담양, 장평, 곡성, 옥과, 동북,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무안, 화순, 능주, 장성, 완도, 진도, 임피, 고부, 태인, 남원, 여산, 운봉, 김제, 만경, 고산, 입실, 순창, 고창, 무장, 흥덕, 무주, 대정	153	80
급경사지	고양, 이천, 청주, 기장, 의령, 양산, 산청, 함양, 여수	9	5

3) 左廟右學 · 左學右廟

前學後廟의 배치법에서 파생된 형식으로 등진 방위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놓인 大成殿을 중심으로 明倫堂이 좌우 어느 쪽에 배치되는가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되게 된다.

즉, 우측에 明倫堂이 위치하면 左廟右學이 되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배치되면 左學右廟 형식이 된다.

이러한 배치는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전체향교의 15%에 불과해 수적으로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이들의 구성은 영역적 그리고 시각적으로 상위의 두 형식에 비교해 유교적 位階성은 떨어지는 표현으로 우측이 좌측보다 位階가 상위임을 나타내는 유교체계의 우상좌하의 질서와 음택풍수의

우남좌여에 따른 위계체계는 左學右廟의 형식에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좌측이 높고 우측이 낮다는 양택풍수에 의한 좌상우하의 위계체계는 左廟右學의 이루는 기본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요인으로 지형적인 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지의 종축 길이가 짧아서 동일 축선상에 大成殿과 明倫堂을 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충분한 부지면적은 가지고는 있으나 거의 평지에 가까운 경우에도 位階的 구성을 위한 해결 방법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 位階性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치에서 2개의 축선을 두어 기능적으로 독립된 공간을 구성하고 유교질서의 근본인 예의 기본원리에 맞추어 位階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배치형식은 좌우의 위계와 지형적인 고상저하와 전상후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진천, 단양, 영암, 광양, 밀양, 돌산향교에서 보듯이 지형적인 位階에 의해 후면의 높은 곳에 제향공간의 大成殿을 놓고, 전면의 낮은 위치에 講學空間의 明倫堂을 배치시켜 있다.

이는 유교적 예의 질서규범을 최대한 적용시켜 지형적 높낮이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位階的으로 조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이러한 배치는 전국 231개소의 향교 중 34개소의 향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4. 左廟右學, 左學右廟의 지형별 배치현황

구분	향교명	향교수	비율 (%)
左廟右學	평지	영춘, 돌산, 정의	3 21
	완경사지	칠곡	1 7
	경사지	강화, 단양, 동래, 사천, 곤양, 예안, 의흥, 비안, 성주, 제주	10 72
左學右廟	평지	합천, 장기, 풍기, 청송, 청도, 영암	6 30
	완경사지	거창,	1 5
	경사지	남양, 평창, 칠원, 진천, 밀양, 대구, 청하, 광양, 익산, 용안, 부안	11 55
	급경사지	진주, 하동	2 10

그 중에서 영춘, 강화향교 등 14개소에서 左廟 右學이 나타나고, 합천, 거창, 남양향교 등 20개소에서 左學右廟의 배치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측이 좌측보다 位階가 상위임을 나타내는 유교체계의 이상좌하와 음택풍수의 우남좌여에 따라 位階가 다소 앞서는 左學右廟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좌측이 높고 우측이 낮다라는 양택풍수의 좌상우하가 적용된 左廟右學은 다소 적게 분포되고 있는데, 이는 左學右廟보다 位階가 다소 떨어지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左學右廟가 유교적 位階가 다소 앞서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⁸⁾

4.3 배치 축에 따른 위계구성

향교건축의 배치에서는 축을 사용하여 권위를 상징하게 하였고, 되도록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구성하고 있다.

부득이 축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대칭 축을 이용하여 권위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축의요소는 전체를 남북 방향으로 연결하는 단일축은 강한 중심성과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축을 기준으로 대칭적 요소를 부가하면 균형과 안정감을 한층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경사지에서 지면의 고저차를 이용한 단일축 구성은 강한 중심성과 位階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향교에서 축구성의 적용은 진입공간에 홍살문 → 문루나 외삼문 → 강학공간에 대칭요소의 동서양재와 중심성을 갖는 명륜당 → 제향공간에 대칭요소의 동서양무와 중심성을 갖는 大成殿을 반복 구성하여 축에 의한 位階성을 높이고 있다.

즉, 향교건축의 배치에서 축을 중심으로 낮은 지형에서부터 진입공간과 과정적공간을 놓고, 그 다음에 講學空間과 제일 높은 곳에 제향공간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최고의 사상성을 지닌 位階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축의 성질을 이용하여 제향기능을 가진 문묘구역과 교육기능을 가진 강학구역을 중심으로 내외삼문 그리고 양무와 양재로 각각 구성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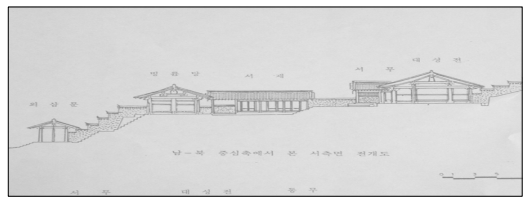
이렇게 구성된 건물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위치하므로 전체배치 형식에 통일성과 질서를 부여한 位階的 조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 나라의 지형은 대부분 경사지나 구릉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상 지형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배치 축이 직선형이나 완전 대칭형은 많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개념상 직선이나 대칭을 추구하면서 지형에 따라 다양한 축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축의 형식에 따른 사례(도면 2)와 세부 기법은 다음과 같다.



도면 2. 일축선형 위계구성 사례(인천향교)

1) 일축선형

大成殿과 明倫堂 건물의 중심으로 축선이 지나가는 형태로 대부분의 향교가 이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형식은 강한 중심성과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

2) 절축선형

大成殿을 중심으로 明倫堂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벗어나거나 틀어지게 배치되어 꺾이거나 절곡되어서 축선이 지나가는 형태로 교동, 양지, 남포, 보은, 칠원, 봉화, 무주, 지도 등의 24개 향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배치는 文廟空間의 기능과 位階성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있겠으나 향교의 기본배치가 어려운 지형일 때의 수법으로 볼 수 있다.

3) 직교축선형

大成殿의 중심축과 明倫堂의 중심축이 직각을 이루며 직교하는 형태로 평창, 진천, 단양향교에서 보이고 있다.

이 배치 또한 향교의 기본배치가 어려운 지형일 때의 수법으로 볼 수 있으며, 전형적인 축의 개념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병렬축선형

大成殿의 중심축과 明倫堂의 중심축이 평행을

8) 향교배치 현황과 특성을 박왕희, 『한국의 향교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

이우며 위치하는 형태로 경산, 남양, 철원, 강화 영춘 등의 33개소 향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배치축의 형식과 현황은 표.5와 같다.

표 5. 축 구성에 의한 배치현황

구분	향교명	향교수	비율 (%)	
前廟後學	일축선	경주, 나주, 함평, 영광, 전주, 정읍, (성균관)	6(1) 3	
	병렬축	경산(분리형), 의성(분리형)	2 1	
前學後廟	일축선	양천, 인천, 부평, 수원, 진위, 경광주, 과주, 평택, 고양, 교하, 적성, 양주, 여주, 용인, 연천, 포천, 양근, 죽산, 양성, 김포, 지평, 안성, 통진, 강릉, 원주, 춘천, 삼척, 홍천, 횡성, 양양, 영월, 정선, 화천, 양구, 간성, 인제, 천안, 회덕, 진잠, 직산, 목천, 온양, 신창, 공주, 보령, 오천, 노성, 연산, 진산, 은진, 서산, 해미, 연기, 전의, 부여, 홍산, 서천, 입천, 석성, 청양, 비인, 환산, 대흥, 덕산, 정산, 홍주, 결성, 예산, 태안, 당진, 면천, 청주, 충주, 제천, 청풍, 청산, 옥천, 문의, 회인, 괴산, 영동, 황간, 청안, 음성, 연풍, 동명, 기장, 울산, 장원, 의령, 김해, 거제, 양산, 영산, 고성, 남해, 단성, 창녕, 삼가, 초계, 함양, 안의, 현풍, 영일, 김산, 홍해, 영주, 순흥, 안동, 인동, 선산, 상주, 문경, 영천, 신령, 하양, 자인, 군위, 진보, 영양, 영덕, 영해, 고령, 평해, 예천, 용궁, 광주, 여수, 순창, 담양, 장평, 곡성, 옥과, 동부, 구례, 고흥, 보성, 낙안, 남평, 강진, 해남, 무안, 화순, 능주, 장성, 진도, 옥구, 임피, 태인, 남원, 함열, 여산, 김제, 금구, 만경, 고산,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무장, 흥덕, 진안, 용담, 대정	165	71
	절축선	교동, 시흥, 양지, 이천, 가평, 아산, 남포, 금산, 보은, 언양, 함안, 칠원, 산청, 개령, 지례, 함창, 봉화, 울진, 장흥, 완도, 지도, 고부, 운봉, 무주	24	10
	병렬축	남양, 철원, 진주, 밀양, 하동, 거창, 함천, 대구, 청하, 장기, 풍기, 청송, 청도, 광양, 영암, 익산, 용안, 부안	18	8
左學右廟	직교축	평창, 진천	2 1	
	병렬축	강화, 영춘, 동래, 사천, 곤양, 칠곡, 예안, 의흥, 비안, 성주, 돌산, 제주, 정의	13	5.5
左廟右學	병렬축	단양	1	0.5
	직교축			

표 5에서 보듯이 배치축 형식은 전국 231개소의 향교 중 일축선형 171개소(74%), 절축선형 24개소(10%), 직교축선형 3개소(1.5%), 병렬축선형 33개소(14.5%)로 분포되어 있어, 일축선형이 축 구성의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배치에 축을 사용하여 구성함으로써 향교에서 요구되는 엄숙함과 권위를 표현하고, 강한 중심성과 절대적 우위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경사지에서 지면의 고저차를 이용한 축 구성은 강한 중심성과 位階性을 높이고 있으며, 축을 중심으로 낮은 지형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간을 배치하여 최고의 사상성을 지닌 位階를 표현하고 있다.

즉, 축에 의한 건물들의 구성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위치하므로 전체배치 형식에 통일성과 질서를 부여한 位階의 조영을 이루게 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지형에 의한 배치의 위계질서는 단순하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엄격한 유교이념과 풍수사상의 조합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배치에 내재된 位階性을 고찰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지형에 따른 배치의 위계구성

배치의 위계질서는 전통적인 유교에 의한 상하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지형에 따라서 배치유형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형의 특성에 의한 전상후하 또는 고상저하의 법칙과 유교사상에 의한 우상좌하, 음택풍수의 우남여좌, 양택풍수의 좌상우하의 법칙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배치형식에 따른 위계구성

유교사상이나 지형에 따라서 배치형식이 결정된 후 그 내부에 건축물이 位階를 두고 놓이게 되는데, 형식별 위계구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前廟後學 형식

평지에서 大成殿과 明倫堂을 일축선상에 두고 양무나 양재를 전면 좌우에 대칭되게 배치하여 位階를 한층 강조하고 있는 형식인데, 이는 건축적인 位階를 나타내는 전상후하의 位階와 유교사상에서 앞과 먼저 것이 상위라는 유교적 질서에 의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후면의 講學空間 출입은 문묘구역 외곽으로 우회하거나 講學空間의 측면을 이용하고 있으며, 누각은 文廟에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2) 前學後廟 형식

경사지에서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明倫堂과 大成殿을 차례로 일축선상에 두고 양재와 양무를 구역의 전면에 대칭으로 배치시켜 位階를 형성하고 있는 형식인데, 이는 수직적인 유교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상하서열의 고상저하에 의한 位階的 구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양재의 위치에 따라서 전학후재형과 전재후학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 전재후학형이 位階가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다.

(3) 左廟右學 · 左學右廟 형식

明倫堂과 大成殿을 일축선상에 배치시키지 않고 횡축선상에 배치시키고 있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문묘구역을 강학구역보다 후면에 배치시키고 있는데, 位階性を 확보하기 위하여 2개의 축선을 두어 독립된 位階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前廟後學이나 前學後廟에 비해 位階性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3) 배치 축에 따른 위계구성

배치 축을 중심으로 진입공간→과정적공간→강

학공간→제향공간으로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유교적인 位階를 표현하고 있는데, 평지에서의 단일축은 중심성과 절대적 우위를 나타내는 축으로 균형과 안정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경사지에서 고저차를 이용한 단일축은 중심성과 함께 시각적인 位階性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에 의한 배치는 향교에 내재되어 있는 위계질서에 의한 결과이며, 신성함과 엄숙함 그리고 유교교육의 실천장소 등에서 질서체계를 이끌어 내어 位階的으로 건물을 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지형에 따른 배치형식은 향교건축이 유학적 바탕 위에 질서를 두고 位階的으로 조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고려사, 권 74지권, 제 28선거고학교조
2. 이달훈, 향교건축의 양식에 관한 연구3, 호서. 문화, 제3집, 1983
3. 김지민, 향교건축의 조영규범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2
4. 도용호,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교육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청주대, 박사논문, 1995
5. 한국전통건축연구회, 한국전통건축, 향교·서원건축, 황토, 1977
6. 김남웅,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배치와 외부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1979
7. 박왕희, 한국의 향교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